



뉴스레터

2025년 5/6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서



뉴스레터
32호(5/6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진 연구활동	07
3. IFES 브리프 및 포럼	13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17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2
2. 언론 속의 IFES	23
3. IFES 도서관	27
4. 예정사항	29
5. 안내사항	30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진 연구활동

IFES 브리프 및 포럼

북한·국제 정세 동향



1. 학술활동

가. 제15차 삼청포럼 개최

북한 경제 전문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트럼프 2.0, 북한 문제 다시 주목 가능성”... 한국엔 복합 전략 필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4월 30일 오후 7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트럼프 정부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트럼프 2.0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 전략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관세 부과, 제조업 회복, 적자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식 경제외교가 북한 문제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면 북한 문제를 외교 의제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중국 견제나 자원 확보, 외교적 이벤트가 필요한 국면에서는 다시 주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광물자원이나 관광 인프라 같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해 ‘보여주기용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를 유지한 채 경제 유인을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입장에서 경제적 보상이 핵 사용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제 안전과 제재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기존 안보·경제 분리 전략은 미중 경쟁과 북·중·러 밀착 상황에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안보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일본·EU·영국·호주 등과의 다자 협력을 통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결의 이행, 일본과의 공동 대응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이 트럼프 2.0 정부와의 초기 외교에서 전략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억지, 외교적 관여, 경제 협력, 지식 공유를 연계한 복합 전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시장화·국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북러 밀착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 비핵화 모두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하며 북러 분리가 대북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봤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 학술활동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 YouTube영상 보러가기



※ 발표전문 보러가기



나. 일본경제연구센터 연구진 및 학계 전문가 대상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진 5명은 4월 25일(금) 오후 2시 일본경제신문사 도쿄 본사를 방문, 일본경제연구센터 연구진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에는 강인덕·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와 조진구·이병철·이형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와타 카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前일본은행 부총재),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학장,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前데이코대학 교수),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대학 교수, 고바라 준노스케 일본경제신문 외교팀장,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인덕 초빙석좌교수는 북한이 9차 당대회에 앞서 러시아 파병과 국내 우상화 정책 등을 통해 대내 통치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주요성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병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의 공식 입장을 고려할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그밖에 북한동향, 미중관계, 미일동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양 기관 전문가들의 상호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김광운 초빙석좌교수는 6년간 200권을 발간한 ‘북조선실록’의 발간취지와 작업내용, 향후 프로젝트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이주인 아쓰시 수석연구원은 일본경제연구소의 ‘대전환 시대의 한일관계’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를 설명하는 등 양 기관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이해와 다양한 의견 교환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북한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인 학술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제16차 삼청포럼 개최

이호철 인천대 명예교수(송도국제학술원장)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없다… 한국은 전략적 균형외교 강화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월 28일 오후 7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을 주제로 발표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1. 학술활동

이 교수는 발표에서 “2050년까지 중국의 미국 추월은 없으며, 완전한 세력전이라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군사·소프트파워·동맹 네트워크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분 세력전’조차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세력전의 부재가 곧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오히려 구조적 긴장으로 지속되며,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등의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과잉된 두려움’과 중국의 ‘과도한 자만심’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미중관계를 신냉전으로 단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과거 미소 냉전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대신 절제된 경쟁과 협력의 공존을 통해 미래의 냉전을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상호인식과 외교적 대화 복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와, 한반도의 지정학에 기반한 자주적 국가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의 단순한 줄타기가 아니라, 전략적 원칙과 자율성을 갖춘 균형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교수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후퇴하고, 현실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상상력과 전략적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YouTube 영상보러가기



※ 발표전문 보러가기



2. 교수진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 1) 장로회신학대학 통일선교대학원 세미나 발표
 - 일자/장소: 2025. 4. 15.(화) / 주기철 기념관 706호
 - 내용: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현주소와 전망
- 2) 경기도 시군 의회 공무원 대상 특강
 - 일자/장소: 2025. 4. 2.(수) /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의실
 - 내용: 남북관계 현황과 한반도 정세
- 3) 한국연구재단 논문 등재 (제37권 1호, 2025년 상반기)
 - 일자: 2025. 5. 31.(토)
 - 내용: 김정은 정권의 인공지능(AI) 활용정책과 전략: 수자화와 정보화 융합

< 주요내용 요약 >

김정은 정권은 국제적 제재와 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목표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 및 도입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립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이하 AI)을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AI 기술을 수자화(digitalization)와 정보화(informatization)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생산성과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체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AI 및 수자화·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먼저 고찰한 뒤 AI 활용정책과 전략을 수자화와 정보화 관점에서 살펴보고, 노동신문 등 북한 문헌에 소개된 주요 사례를 토대로 두 개념 융합의 실태와 성과를 논증하였다.

이어서 AI 기반 수자화와 정보화 추진의 실태 분석을 통해 잠재력과 한계를 규명하였다. AI를 활용한 수자화와 정보화 추진 사례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혁신, 기술 자립, 사회적 서비스 개선, 체제 통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진구 교수

- 1) 한중사회과학연구 논문 등재 (한중사회과학학회 Vol.23 No.2)

2. 교수진 연구활동

- 일자: 2025. 4. 1.(화)

- 내용: 미중 경쟁 하 일본의 경제안보정책: 경제안보추진법안과 반도체 산업 재생을 중심으로

< 주요내용 요약 >

본 논문은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두 축인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반도체 전략이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 제시했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를 국가전략상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는 대만 유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일본 명목 GDP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심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반도체 부족을 회피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재생을 국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의 생산과 연구개발 거점을 일본 국내에 구축하고 있지만, 기대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 등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상범 교수

1) 입법과 정책 논문 등재 (국회 입법조사처 학술지 제17권 제1호 2025)

- 일자: 2025. 4. 30.(수)

- 내용: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 모색

< 주요내용 요약 >

본 연구는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를 연계·결합한 포괄적 협력안보 개념에 기초해 주로 환경문제에만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한반도 생명공동체 개념을 생태학 및 평화생태학 관점에서 확대·재구성하여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적용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가 재정립하려는 한반도 생명공동체는 동등성과 평등성, 공생구조를 강조하며, 다른 공동체를 배제하지 않으며, 갈등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추구한다.

따라서 한반도 생명공동체는 생명의 다양성을 포용하여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 구조를 형성시키기 위한 공동의 인식에 기초해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APEC 고위 문화 대표회의 준비회의 주재
 - 일자/장소: 2025. 4. 8.(화) / 프레스센터
 - 내용: 의제, 초청자 문제 등에 대해 협의
- 2)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세미나 기조연설
 - 일자/장소: 2025. 4. 15.(화) / 동경 뉴퍼시픽호텔
 - 내용: 60주년 한일 양국이 맞이하는 도전 분석과 대응책 제시
- 3) 아산 포럼 세션 주재
 - 일자/장소: 2025. 4. 23.(수) / 하얏트호텔
 - 내용: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토론
- 4) 한·EU 세미나 주재
 - 일자/장소: 2025. 5. 9.(금) / Four Seasons Hotel
 - 내용: 트럼프 등장 이후 美외교 안보정책 급변 가능성 대응, 한·EU협력 강화 필요

곽태환 초빙석좌교수

- 1) 한국외대 71주년 개교기념식 HUFs AWARD (해외부분) 수상
 - 일자/장소: 2025. 4. 18.(금) / 한국외대



최영준 초빙교수

- 1) 국민대학교 학부생(50명) 대상 특강
 - 일자/장소: 2025. 4. 14.(월) / 국민대학교 북악관
 - 내용: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영향

2. 교수진 연구활동

- 2) 한국행정학회 북한행정사회연구회 토론회
 - 일자/장소: 2025. 4. 15.(화) / 한국행정학회 회의실
 - 내용: 2025년도 연구회 운영방향
- 3) 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학회 회원(30명) 대상 특강
 - 일자/장소: 2025. 5. 16.(금)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회의실
 - 내용: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시사점

이상만 초빙교수

- 1) 중국 산둥대학 전문가 대상 특강 및 간담회 발표
 - 일자/장소: 2025. 5. 7.(수) ~ 5. 8.(목) / 산둥대학 회의실
 - 내용: 트럼프 2기 동북아정세 변혁과 한중관계 발전 방향
- 2) 중국 연태대학 학생 등 전문가(120명) 대상 특강 및 간담회 발표
 - 일자/장소: 2025. 5. 12.(월) ~ 5. 13.(화) / 연태대학 회의실
 - 내용: 유교문화와 중국 문명을 기초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구상



〈산둥대학 전문가 간담회〉



〈연태대학 특강〉

임형신 초빙교수

- 1) 제17회 해군 국제해양력심포지엄 토론회
 - 일자/장소: 2025. 5. 29.(목) / 시그니엘 부산
 - 내용: 자유롭고 열린 바다, 공존과 번영을 향한 힘찬 항해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 1) 경향신문 인터뷰 (2025. 4. 1. 화)
 - 트럼프, 또 김정은 접촉 의지...북한은 '일단 관망' 한국은 '무방비'
- 2) KBS 뉴스 인터뷰 (2025. 4. 5. 토 / 4. 8. 화 / 4. 29. 화 / 5. 3. 토 / 5. 8. 목 / 5. 14. 수 / 5. 17. 토)
 - 北, '윤 파면' 하루 만에 간략 보도...특수부대 간 김정은, 의도는? (4. 5.)
 - 6년 만에 평양 달린 외국인들...북한 관광 재개 신호탄? (4. 8.)
 - 북한군 실전 영상 공개...북한, 푸틴 '파병 감사' 전하며 연일 선전 (4. 29)
 - [클로즈업 북한] '핵심 측근' 떴다...조용원·김여정 (5. 3.)
 - "평년보다 4배 생산"...군수공장 간 김정은, 북러협력 의식? (5. 8.)
 - 드론 정찰 등 '현대전 경험' 공유...북, '최현급' 새 군함도 건조 중 (5. 14.)
 - 북,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공개...“전쟁준비 획기적 전환” (5. 17.)
- 3) MBC 뉴스 인터뷰 (2025. 4. 5. 토 / 5. 26. 월)
 - 북한 '尹 파면' 하루 뒤 보도...김정은 '특작부대' 시찰 (4. 5.)
 - [공약검증] 李 '남북관계 복원' vs 金 '핵잠재력 강화'...대북 해법 극과 극 (5. 26.)
- 4) 채널A 뉴스 인터뷰 (2025. 4. 5. 토)
 - 김정은, 尹 파면 날짜 맞춘 듯 “실전 능력이 애국심”
- 5) 세계일보 인터뷰 (2025. 4. 17. 목)
 - 北, 美 B-1B 한반도 전개에 “공격 준비 과정...묵과 안 해”
- 6) 뉴스1 인터뷰 (2025. 4. 21. 월)
 - 北 김정은, 딸 주애 영당이 만졌다?...“습관 무섭다” vs “옷 잡은 것”
- 7) MBN 뉴스 인터뷰 (2025. 4. 28. 월)
 - 북, 러시아 파병 '공식 인정'...김정은 방러 사전 정지 작업?
- 8) YTN 뉴스 인터뷰 (2025. 4. 28. 월 / 5. 10. 토 / 5. 25. 일)
 - 북한도 러 파병 공식 인정...김정은 도박 성공? (4. 28.)
 - 김정은, 합동타격훈련 참관..."전술핵무기 효율성 제고" (5. 10.)
 - 북, 어처구니없는 구축함 진수 사고 신속 공개 이유는? (5. 25.)
- 9) JTBS 뉴스 인터뷰 (2025. 4. 28. 월 / 5. 26. 월)
 - 북러, 파병 반년 만에 나란히 첫 공식 확인...'파병 대가' 명분 만드나 (4. 28.)
 - 김정은 눈앞서 '전북' 후폭풍...북 간부급까지 줄줄이 구속 (5. 26.)

2. 교수진 연구활동

10) TV 조선 뉴스 인터뷰 (2025. 5. 17. 토)

- 北, 美의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에 "정치적 도발 행위" 반발

11) 아리랑 TV뉴스 인터뷰 (2025. 5. 22. 목)

- N. Korea fires cruise missiles after reporting destroyer launch failure

이병철 교수

1) 중앙일보 인터뷰 (2025. 4. 2. 수 / 4. 16. 수)

-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있다, 어느 시점에 무언가 할 것” (4. 2.)

- 한·미 내주 ‘관세 담판’ 시작…알래스카 LNG가 최대 난제 (4. 16.)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한국일보 ‘안호영 실사구시’ 칼럼 (2025. 4. 28. 월 / 5. 26. 월)

- 끝까지 지켜야 할 '자유주의 국제질서' (4. 28.)

* (칼럼 전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514140003904?did=NA>

- '트럼프 2기'에도 '전작권 전환'은 필수 과제 (5. 26.)

* (칼럼 전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309500004031>

이상만 초빙교수

1) 중국 국무원 운영매체 '중국망' 기고 (2025. 4. 17. 목)

- 트럼프의 미국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 (기고 전문) http://korean.china.org.cn/2025-04/17/content_117829696.html

권기원 초빙교수

1) 아주경제 칼럼 기고 (2025. 5. 2. 금)

- 트럼프 2기 관세정책과 우리의 대응

* (기고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50502094302334>

3. IFES 브리프 및 포럼

가. IFES 브리프 (4건)

IFES 브리프(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마러라고 합의’ 구상: 영향과 대응

2025. 4. 15.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연구실장)

트럼프 행정부의 ‘마러라고 합의’ 구상은 관세와 안보 정책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안보 재구조화가 결합된 거대한 전략 전환으로 보인다. 한국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적 접근을 통해 중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대미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분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미 의존도 수위 조절 전략으로서 무역·경제 다변화, 방산·안보 협력 다자화, 국제 제도와 연대 활용, 전략기술 자립 등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의 안보 자율성과 역지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이중역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대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것도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고 협상의 공간을 여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대미 군사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다.

트럼프식 통상+안보 통합 전략은 단기적 ‘경제 논리’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과 대외정책 접근법, 그리고 한국의 현재 정치적 공백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국가 전략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3. IFES 브리프 및 포럼

IFES 브리프(요약)

남북 체육 영역에서 본 ‘두 국가론’의 의미

2025. 4. 30. 최진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1950년대 국제사회에서 IOC의 ‘승인(Recognition)’은 신생 독립국들에게는 ‘국가 건설(Nation Building)’ 과정에서 ‘국가성’ 인정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북한은 올림픽 참가를 위해 1952년부터 IOC와 접촉하여 1969년에 가서야 DPRK 국호를 인정받아 완전한 승인(Full Recognition)을 받았다. 1972년 뮌헨올림픽은 남과 북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를 보인 첫 사례가 되었다.

이후, 1990년까지 북은 ‘단일팀(통일)’ 남은 ‘개별팀(두 국가)’ 전략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1991년에 남한 정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일시적 단일팀을 구성했지만, 신보수 세력의 등장과 함께 단일팀(통일)의 기대감은 과거로 회귀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과 북을 동등한 분단국가로 바라보았으며, 올림픽과 같은 평화를 지향하는 공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러-우 전쟁 종결 시나리오와 한반도 안보의 과제

2025. 5. 14. 정재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안 제시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 모색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러-우 전쟁의 시나리오로는 ①러시아의 승리, ②우크라이나의 승리, ③장기전(Long War), ④전쟁 동결(Frozen conflict) 등 네 가지를 상정할 수 있으나 전쟁 동결 방식의 정전 협상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중재안도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등을 골자로 한 ‘전쟁 동결’ 방식의 해법이다.

러-우 전쟁은 미국 주도 자유주의 패권의 종말과 강대국 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강대국 정치가 본격화하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 자강 노력, 통합전 능력, 초당적 안보 등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북미 간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를 위한 다섯 가지 조건

2025. 5. 20.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연구실장)

북한과 미국 간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 스타일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발전(예: 지방발전 20×10 정책) 및 민생개선 수요를 결합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보유국가 입장 고수, 북러 간 군사동맹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술적 제약 등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리비아, 시리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사례는 북미관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안보 패키지 합의를 견인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비핵화 유연성, 대북제재 완화, 광물협정과 같은 경제적 유인, 신뢰구축, 기술적 실행가능성)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실용주의 외교가 중동지역을 넘어 북한으로 확장하려면, 하노이 실패 교훈을 바탕으로 신뢰 조성과 실질적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신뢰 조성은 단계별 실행조치와 상호 이익의 균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지속가능할 것이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3. IFES 브리프 및 포럼

나. IFES 포럼 (4건)

IFES 포럼(요약)

South Korea Without U.S. Forces

2025. 4. 14.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핵연구센터장)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IFES 포럼(요약)

North Korea Policy Proposals for the New Administration

2025. 5. 13.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국제협력실장)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IFES 포럼(요약)

Trump 2.0: What Is to Be Done Abou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2025. 5. 22.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IFES 포럼(요약)

What Should the ROK's New Government Do to Shape the Future of US-DPRK Relations?

2025. 5. 27.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4.27.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서면 입장문, 러시아 파병 공식 인정 “김정은, 북러 조약에 따라 참전 명령” (4.28.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공화국무력의 군사활동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 주장
- 북한 매체, 4.26. 러시아 총참모장·외무부 대변인 ‘북한군 참전 사의’ 발언 인용 보도 (4.28. 조선중앙통신; 4.29. 로동신문)
 - “로씨야연방무력 총참모장, 외무성 대변인 등이 쿠르스크지역 해방에 크게 기여한 우리공화국 무력전투구분대 들의 업적을 높이 찬양”
- 4.28. 크렘린 대변인 “북러 조약 효과적 가동 중, 필요시 서로에게 강력한 원조 제공 의무” 언급 인용 보도 (4.29. 조선중앙통신 / 4.30. 로동신문)
- 북한군 대표단 모스크바 제3차 ‘국제반파쇼대회’ 참가, 단장 박영일 총정치국 부국장 연설서 “다극화된 세계질서수립에 적극 기여” 북러 조약 정신 강조(5.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마음은 붉은광장 푸틴 대통령 동지와 함께”, 러 대사관 축하 방문(5.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해 집권 후 처음으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축하 방문 해 연설
- 김정은 참관 청진조선소 5천t급 구축함 진수 과정 ‘중대사고’, 김정은 “6월 전원회의 전으로 원상복원 무조건 완결”(5.22.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사고와 관련해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 “국가의 존위와 자 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고 평가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미국 / 일본

< 트럼프 행정부 관세전쟁 관련 >

● 한미 '2+2 통상 협의' 실시 (4.25. 연합뉴스 / 4.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협의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논의 없음.
-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 목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할 것.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4개 분야 중심
- 한미 '2+2 통상 협의' 결과 주요 내용: ▲무역 제한이 아닌 장려하는 균형 확대에 초점을 맞춘 논의에 고무 ▲무역 장벽을 낮추고 대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한미 양국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

● 미·중 90일 관세휴전 합의 (5.13. 중앙일보 등)

- 5.10.~5.11.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관련 첫 미·중 고위급 회담 진행
- 「미·중 제네바 경제·무역회담 공동성명」 체결 상호관세 115%포인트 인하 합의: ▲미국 145%→30% ▲중국 125%→10%
- 5.11. 허리핑 국무원 부총리, 회담 후 기자회견 “회담은 심도·솔직·건설적”, “향후 협력 기반 마련”(5.12. 신화통신)
- 5.12.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이번 합의로 미·중 관계 완전히 재설정(total reset)”, “중국 이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에도, 우리(미국)에도, 통일과 평화(unification and peace)*에도 도움이 될 것”(5.13. 로이터통신)

< 일반사항 >

- 4.1. 미국 국무부 성명 “중국의 위협 전술과 불안정을 만드는 행동에 직면해 대만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공약은 계속됨”,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함.” (4.2. 연합뉴스)
- 일본, 3.30. 미일 국방장관 회담서 한반도 및 남·동중국해 묶는 ‘원 시어터’ 구상 제안 (4.15. 아사히신문 / 4.15. 연합뉴스·YTN·SBS)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일본은 일본·미국·호주·필리핀·한국 등을 ‘원 시어터(하나의 전역·一つの戦域: One Theater)’로 보면서 파트너십을 심화할 계획”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원 시어터 구상 언급하며 일본·미국·호주·필리핀·한국 등 연계 중요성 강조

- **미국 에너지부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공식 발효**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민감국가 지정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해제까지)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4.15. 국민일보·서울경제 등)

- **미국 국방 당국자들 인용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약 4,500명 광 등 역내 이전 방안 검토 중”, 한국 국방부·외교부 “한미 간 전혀 논의된 바 없다”(5.22. 월스트리트저널; 5.23. 연합뉴스)**

- **미국 국방정보국(DIA)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 공개(5.25. DNI / 5.24. YTN)**

-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됐던 북한 특수작전군이 훈련수준이 높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음.
-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 받았다고 확신
-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전력 강화되어 2035년까지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50기 보유할 것으로 전망
- 7차 핵실험 준비 완료되었을 것

중국 / 러시아

- **4.1. 중국 동부전구 대변인 “대만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이며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조치”(4.1. 중앙일보)**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 4.6. 주요 7개국(G7) 공동 성명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비롯해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에 러시아 파병 감사 성명 발표 (4.28. 타스통신)
 - 4.28. 푸틴 대통령 성명 요지(4.29.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북한군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단위)들 적극 참가, 쿠르스크 작전 4.26. 완결 ▲북한의 파병은 2024.6.19. 러·북 조약 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 한다”에 따른 것 ▲김정은과 북한 전체 지도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
-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 착공식 (4.30. 타스통신)
 - 진입로 포함 총 4.7km, 다리 자체 길이 1km, 러시아 부분 424m, 북한 부분 581m, 다리 너비 7미터(2차선), 1년 반 내 완공 예상
-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수정해야, 북러 조약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 줄이기 위한 것” (5.1. 연합 뉴스·중앙일보 등)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브릭스(BRICS) 고위 안보 대표 회의 화상 참여해 “러시아는 대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한 제재 검토를 지지”한다고 발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정상회담 공동성명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확대 용납 못 해”, “대북 제재·강압 중단 촉구”
 - ‘신시대 중·러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주요 내용 (5.9.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서 북한군 최고위급 대표단과 만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군대에 행운을 빈다” (5.9. 타스통신)
-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타결, 상호 1천 명 포로 교환 및 추가 회동* 합의했으나 휴전에 입장차 (5.17. 연합뉴스)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동향

- 박정진 서울부총장 → 특임부총장 (2025. 5. 1.)
- 이인엽 교수 (Tennessee Tech University, USA)
 - IFES 해외방문학자 (2025. 5. 20. ~ 7. 25.)

나. 한양대 국제학부 외국인 학생단 방문

한양대 국제학부 최용 지도 교수와 외국인 학생단 52명이 5월 14일(수) 10: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를 방문했다.

외국인 학생단은 통일관 정산홀에서 IFES-UNKS 홍보 동영상 시청(영문)과 질의 응답, 도서관 북한자료실 견학, 기념 촬영(잔디 광장) 등을 하였다.

외국인 학생들은 북한대학원대 김정 교수와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하여 △러시아 등 동구권 학생들을 위한 연구(예: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등) 기회 부여 △석 박사 과정의 장학제도와 외국인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정도 △기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도서관 북한자료실 견학을 통해 다양한 북한 원전 자료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양대 국제학부 최용 지도 교수는 “외국인 학생과 외국 체류 경험이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북한대학원대 학위 과정에 관심이 많다면서 북한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견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기념 촬영 >



< 도서관 북한자료실 견학 >

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한반도문제연구회 학생단 방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한반도문제연구회 스누코아(SNUKOA) 동아리 학생단 13명이 5월 24일 (토) 10:0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를 방문했다.

학생단은 통일관 세미나실에서 홍보영상(IFES-UNKS, 도서관 PPT) 시청, IFES 사료실 및 도서관 북한자료실 등을 견학하고, 신중대 북한대학원대 교수의(주제: 남북관계의 역사와 북한의 '두 국가 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특강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신중대 북한대학원대 교수의 특강을 통해 남북관계 규정과 역사 및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북한의 '두 국가 선언' 이후 향후 남북관계의 설정문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도서관 북한자료실 견학을 통해 다양한 북한 원전 자료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중대 교수 특강〉



〈도서관 북한자료실 견학〉

2. 언론 속의 IFES

가. 제15차 삼청포럼 개최 결과 언론보도 (2025. 5. 2.)

CNB 뉴스, 경남도민신문, 뉴스프리존, 경남에나뉴스, 대학저널, 베리스타알파 등 8개 국내 언론사에서 『제15차 삼청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2.0, 북한 문제 다시 주목 가능성… 한국엔 복합 전략 필요"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CNB 뉴스 최원석 기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달 30일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삼청포럼을 가졌다. 포럼에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트럼프 정부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나. 『IFES 포럼』 인용 언론보도

1) 뉴스1 (2025. 5. 14.)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차기 정부가 대북 방송이나 전단 살포와 같은 대북 심리전을 멈추고

올해 8·15 광복절 80주년을 계기로 북한 측에 개방적인 대화 채널을 제안하는 등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영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전 통일부 차관)는 14일 경남대의 비정기 간행물 '이슈포럼'에 게재한 'North Korea Policy Proposals for the New Administration'(새 정부를 위한 대북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2) CBS노컷뉴스 (2025. 5. 17.)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최영준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는 최근 발표한 영문보고서 '새 정부를 위한 대북정책 제안'(North Korea Policy Proposals for the New Administration)에서 "심리전의 중단은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이후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다. 제16차 삼청포럼 개최 결과 언론보도 (2025. 5. 29.)

아시아경제, CNB 뉴스, 경상도민신문, 대학저널, 베리스타 알파 등 8개 국내 언론사에서 『제16차 삼청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16차 삼청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송종구 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8일 오후 7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미·중 관계의 미래와 한국"을 주제로 발표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2050년까지 중국의 미국 추월은 없으며, 완전한 세력전이라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군사·소프트파워·동맹 네트워크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분 세력전'이 조차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3. IFES 도서관

가. 유료회원 대상 북한자료 개방(자료 열람) 안내

연구소는 도서관 유료회원 대상으로 북한자료를 개방(자료 열람)하여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북한자료 개방 시기: 2025년 5월 1일 부터

< 북한자료 소장 현황 >

- 단행본 (1만여 권): 「김일성·김정일 저작집」, 「조선중앙연감」, 「조선의 명인」, 「조선로동당의 문예 정책과 해방후 문학」, 「빛나는 조국」 등
- 정기간행물 (107종 1만여 권): 「노동신문」, 「조선신보」, 「Pyongyang Times」, 「경제연구」, 「근로자」, 「김대학보」, 「조선문학」 등
- 시청각 자료 (2,200여 점): 「평양모란봉 교예단 공연」, 「기다리는 아버지」,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푸른 꿈」, 「그는 탄부였다」 등

< 북한자료실 주요 사진 >



나. 남북회담 공개자료 입수 안내

연구소는 연구자들이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부(남북관계관리단)에서 남북회담 공개 자료를 입수하였다.

○ 자료 현황: 남북대화 사료집 제2권 ~ 제13권 (기간: 1970년 8월 ~ 1990년 7월)

다.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는 연중 매일 도서 나눔을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2025.4~5월중 개방서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 기증 897권, 도서 나눔 913권

< 북한자료 개방(열람) 안내 홍보 포스터 >

북한자료 개방(열람) 안내

2025. 5. 1.(목) 부터

회원특전

- **북한자료 열람**
 - 「김일성/김정일 저작집」, 「조선중앙연감」 등 **단행본 1만여 권**
 - 「노동신문」, 「경제연구」, 「김대학보」 등 **정기간행물 107종 1만여 권**
 -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등 **시청각 자료 2,200여 점**
- 도서관 방문시 **NKPro** 접속 및 활용
- **남북회담** 공개 문서 열람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제공

대 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유료회원

이용시간

월 - 토
9:00 - 21:00

참고사항

- 신분증 지참
- 회원가입 당일 자료열람 가능
- **복사 및 대출 불가능**

회원가입신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 02-3700-0725~6

4. 예정사항

가. 학술지(국·영문) 발간

- 『Asian Perspective』 (2025년 Spring) 발간 (6. 1.)
- 『한국과 국제정치』 (2025년 여름호) 발간 (6. 30.)

나. 2025 Peace Forum 개최 (2025. 6. 13.)

2025 PEACE FORUM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3:30~17:00
·장 소: 경남대학교 창조관 1층 평화홀
·주 제: **트럼프 2기 출범과 동북아 정세 변화 전망 및 3국의 대응**
·주 최: 경남대학교, 일본 소카대학교, 대만 중국문화대학

개회식 13:30-14:00	개회인사	박재규(경남대 총장) Mika Suzuki(일본 소카대 총장) Chia-Chuen Chang(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
	기념사진	사회 조재욱(경남대 교수)
제1회의 14:00-15:00	주제발표	한국 정부의 동북아 정책 제언: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
	토론	Hideki Tamai (일본 소카대 부총장) Chia-yin Wei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
제2회의 15:00-16:00	주제발표	미중러 관계 변화 전망 및 일본의 대응 Minoru Koide (일본 소카대 교수)
	토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Roger S. Chen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
제3회의 16:00-17:00	주제발표	양안 관계 변화 전망 및 대만의 대응 Chia-Chuen Chang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
	토론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Jonathan Luckhurst (일본 소카대 교수)

※ 본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며, 동시통역을 제공합니다.



5.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50,000원/일반회원: 70,000원/기관회원:13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북한자료 열람 가능)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